

언어평가 도구로서의 제2외국어 SNULT 문제 유형 분석 - 독일어와 일본어 시험을 중심으로

박혜영¹ · 강미란^{2*}

¹서울대학교, ²서울대학교

Analysis of Question Types in Second Foreign Language SNULT as a Language Testing Tool: Focusing on German and Japanese Tests

Hyeyoung Park¹ and Miran Kang^{2*}

¹Seoul National University, ²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major attributes and features of different question (or item) types us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s (SNULT) as a wa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se tests. A total of 50 reading and listening items each were selected from *SNULT German vol. 2.* (in press) and *SNULT Japanese vol. 2.* (2019) and then analyzed by using Bachman's (1990) Test Method Facets framework. Results of analysis have shown that the reading and listening sections of both tests are so constructed that each question has not only various degrees of difficulties, but also focuses on measuring test taker's ability to grasp main ideas, to understand details, and to make plausible inferen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th SNULT German and Japanese tests are equipped with appropriate formats and contents for testing test-takers' foreign language competence and therefore seen to be valid foreign language testing tools.

Keywords: question types, attributes, degree of difficulty,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1. 서 론

제2외국어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Test (SNULT)는 정부기관 · 공공기관

* 이 논문을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과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TEPS센터 이용원 소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구의 초기 단계부터 조언과 도움을 주신 언어능력측정센터 이성현 소장님, 고길수 선생님, 김엘레나 선생님, 문성주 선생님, 손남호 선생님, 송홍령 선생님, 코마츠 요시타카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논문의 모든 미흡한 부분은 필자의 몫임을 밝혀 둡니다.

† Corresponding author: mirankang@hotmail.com



·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의 의뢰를 받아 해외파견요원이나 유학생을 선발할 평가도구의 필요에 의해 개발되어 1967년에 기관대상으로만 시행되다가 2008년 8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시험 체제로 정비된 이래 11년간 46회의 정기시험과 다수의 특별시험을 실시하여,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의 6개 언어를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제2외국어 능력평가 시험으로 자리잡아 오고 있다.

그간 제2외국어 SNULT는 한국인 수험자를 대상으로 6개 외국어 능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시험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왔다.

본고는 이러한 그간의 SNULT 시행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언어평가 도구로서 SNULT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확히 한 다음 SNULT 시험방식의 체계와 구체적인 문제 유형 분석을 통해 시험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앞으로의 개선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논지를 전개하면서 사례로서 든 문제 유형은 다언어시험인 SNULT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기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서양언어 1개와 동양언어 1개로 압축하였다.

2.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외국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작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는 것에는 신뢰도, 타당도, 실용성, 파급효과 등이 있다(Ozaki, 2008, p. 25). 이 중에서도 평가 도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이다.

신뢰도(reliability)란 측정도구로서의 측정결과의 일관성, 안정성을 가리킨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동일한 측정 대상에게 같은 조건하에서 시험을 실시했을 때 몇 번을 측정하든지 누가 하든지 상관없이 항상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Ishida, 1992, p. 43).

타당도(validity)란 해당 시험이 측정하려고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시험이 갖추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다. 타당도는 (1)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2)준거 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3)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 등으로 분류된다(Ishida, 1992, p. 41).

최인철(Choi, I.-C. 1993:390, 2003:89)에 의하면 한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타당하게 측정하는가를 조사하는 구인타당도가 타당도 검증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도의 개념상 가장 핵심적인 검증과정이라고 한다.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최인철(Choi, 1993, 2003)은 Bachman(1990)의 시험방식 양상(Test Method Facets) 모델이론에 근거를 둔 다음의 5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타당성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시험환경, (2)시험 구성 체제요소, (3)시험문제 내용 속성, (4)예상되는 수험자의 응답 속성, (5)시험문제 내용과 수험자 응답과의 관계이다. 최인철은 언어 평가의 내용과 형식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는 시험방식양상이 얼마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의 언어기능과 내용에 근접하며 수험자들의 실력수준에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시험의

진정성(authenticity)과 타당도가 좌우된다고 지적하고 외국어 시험 출제와 타당성 검증과정에서는 시험방식양상의 세부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심층적으로 고려하고 점검해야만 좋은 시험 문제가 개발될 수 있고 체계적인 타당도 검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고는 SNULT의 시험 체제가 언어능력 평가 도구로서 적합한가라고 하는 타당도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방식 양상 모델이론에 근거한 최인철(Choi, 2003, p. 90-101)의 외국어능력 평가방법 중에서 SNULT 시험방식과 비교검증이 가능한 청해, 문법, 어휘, 독해 시험방식을 개발하여 타당도 검증에 필요한 핵심적 조건들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2.1. 청해

청해시험의 문항수 및 시험시간은 속도 시험의 속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언어사용 속도로 녹음하며 응답시간을 가능한 제한한다. 또한 음성언어의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청해지문, 질문과 선택지를 모두 음성만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수험자의 기억 부담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청해시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선택지는 짧게 제시하며, 또한 독해시험이나 문법시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틀리지 않게 제시한다.

지문의 청취 횟수는 2번이 적절하다. 이는 자연스러운 속도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자를 위해 인위적인 난이도 조정을 통하여 변별력을 향상시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인위적인 시험유형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방식에 근접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기존 청해시험에서 고난이도의 문제유형 중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긴 지문을 주고 그에 따른 질문을 4~5개 정도 제시하는 유형이다. 독해시험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이런 유형은 문항 간 국부종속(local dependence)¹⁾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 지문당 한 문항으로 국한하는 것이 국부독립성의 원칙을 지키는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청해시험에서 출제되는 단락 정도 길이의 청해지문은 실제 언어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데 다소 미흡하나 적절히 문맥을 제시하여 세부적인 청해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유형과 아울러 거시적인 청해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유형을 통해 종합적 언어능력인 청해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방식에 맞춘 수험자들의 수험전략에 따라 부당한 불이익을 극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을 활용한다. 특히 실생활에서 시청각 기관을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각 뿐만 아니라 시각적 입력을 활용하는 시험유형도 포함한다.

2.2 문법

실제 언어사용의 특성상 시간적 제약이 필연적이므로 문법시험 역시 역량 시험보다는 시간

1) 국부종속이란 개념은 한 문항을 맞거나 틀리는 경우에 다음 문항을 맞거나 틀릴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에 제한을 두는 속도 시험의 양상을 취한다.

문법시험방식은 어구 빈칸 채우기 유형과 오류 찾아내기 유형으로 구성된다. 어구 빈칸 채우기 유형은 주로 쉬운 문제로 간주되며 작문의 기본적인 능력인 문장구성능력을 평가한다. 오류 찾아내기 유형에서는 문어체 담화 및 구어체 대화 문장을 구성하는 의미단락을 사선으로 분리하여, 문맥과 함께 사용되는 거시적인 문법능력인 진정한 구문판단능력을 측정한다.

2.3 어휘

어휘를 통한 순간적으로 느끼는 개념 파악이 시간제약이 많은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매우 중요하므로 어휘력시험도 잠재적인 어휘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속도 시험으로 시행한다.

어휘시험방식은 일반적으로 빈칸 완성형과 동의어 선택형의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동의어 선택형은 전후 문맥에 의존하지 않아도 밑줄 친 어구의 동의어를 고르게 함으로써 문맥과 유리된 어휘력을 측정하는 분리식 시험의 양상을 띠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빈칸 완성형은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통합적 시험의 양상을 띠게 되므로 신뢰성 및 타당성이 제고된다.

어휘력 시험에서도 진정한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려면 문어체 및 구어체의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어휘력을 측정해야 한다. 문어체 어휘력은 한 문장으로 제시해도 되지만 구어체 어휘력 측정은 대화체인 두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2.4 독해

외국어능력의 중요한 요소인 속독능력을 측정한다는 차원에서도 속도시험의 양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종합적 언어능력 평가에선 통상 1분에 한 문항을 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해시험과 마찬가지로 지문의 국부독립성 원칙이 신뢰도 높은 시험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주제(topic)의 편파성과 배경지식이란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문적인 글 외에도 실생활에 밀접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독서물(신문/잡지 기사, 공익/상업 광고, 소설 등)을 포함한 지문 출처의 다양화를 꾀하여 진정한 의사소통능력의 배양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 독해지문에 한 문항을 제시하고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의 지문은 지양해야 한다.

동일한 시험유형별로 문항을 연속해서 제시하는 방식은 수험자들이 연속되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 때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독해에만 충실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독해과정에 근접하는 타당한 방식이다.

독해시험 유형으로는 선다형 독해지문, 핵심어구 빈칸 채우기, 문장순서 재배열, 적절한 문장 삽입, 불필요한 문장 삭제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험방식에 맞춘 수험자들의 수험전략에 따라 부당한 불이익을 극소화하기 위해 타당성이 인정된 문제방식 중에서 다양한 유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칸 채우기 유형은 독해시험의 타당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택지의 질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형이다. 정답이 이미 원문에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정답의 명백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줄어든다. 대의파악, 추론 등의 종합적인 독해능

력을 매우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출제하기도 용이하므로 타당도 높은 시험유형이다.

이상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청해, 문법, 어휘, 독해 영역에서 타당도 높은 시험 방식의 양상들은 실생활의 의사소통능력을 반영하면서 측정하고자 하는 언어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험의 전체적인 문제 구성과 세부적인 문제 유형의 타당성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SNULT 시험 체제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여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방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고는 SNULT 시험방식 양상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먼저 SNULT 문제 구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문제 유형을 분석하였다. 문제 구성의 분석항목으로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의 5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점검하였다. (1) 문항 수 및 수험시간, (2) 음성언어 대 문자언어, (3) 일지문 일문항 원칙, (4) 지문 내용 및 길이, (5) 다양한 시험방식이다.

분석자료는 SNULT 기출문제집에서 청해시험(50문항), 독해시험(50문항)을 사용하였다. 문제 유형 분석에서는 다언어시험인 SNULT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서양언어 중에서 독일어 청해시험, 동양언어 중에서 일본어 독해시험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연구목적에 비추어 언어간 비교는 배제하고 SNULT 시험방식의 타당도 검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문제 예시는 청해시험은 『SNULT 독일어 vol.2』, 독해시험은 『SNULT 일본어 vol.2』에서 인용하였다.

4. SNULT 문제 구성 분석

SNULT 시험의 문제 구성은 다음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SNULT 문제 구성

영역	영역별 설명	문항 수	시간	배점
청해	Part I 한 문장을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5	50분	100점
	Part II 짧은 대화를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5		
	Part III 긴 대화를 듣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0		
	Part IV 담화를 듣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0		
독해	Part I 문법적 지식을 묻는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0	50분	100점
	Part II 어휘적 지식을 묻는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0		
	Part III 지문을 읽고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5		
	Part IV 지문을 읽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5		
합계		100	100분	100점

4.1 문항 수 및 시험시간

SNULT는 청해시험과 독해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0문항으로 시험시간은 50분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어능력의 측정에서는 속도시험의 양상이 중요시되고 있다. SNULT도 통상적으로 1분에 한 문항을 풀도록 되어 있어 이론적으로도 타당성 있는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설정하고 있다.

4.2 음성언어 대 문자언어

SNULT 청해시험은 정확한 청해력 측정을 위해 듣기만으로 진행되며 문제나 선택지 내용이 일체 인쇄되지 않는다. 이는 독해력이 개입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측정의 불균등을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청해시험의 지문과 문제는 2회, 선택지는 1회 들려 준다.

4.3 일지문 일문항 원칙

청해시험과 독해시험 모두 일지문 일문항 원칙을 적용하여 국부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청해시험은 <Part III>와 <Part IV>에서 각각 긴 대화와 구어체로 된 담화를 듣고 질문에 적절한 답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모두 일지문 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해시험에서도 <Part III>와 <Part IV>에서 문어체 지문을 읽고 빈칸을 채우거나 질문에 적절한 답을 고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지문 일문항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각 문항의 국부독립성을 확보하여 시험의 타당도를 제고하고 있다.

4.4 지문 내용 및 길이

청해시험과 독해시험의 지문내용은 수험자가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대화문과 담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듣기와 읽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문의 내용은 실용적인 것에서 전문적인 영역까지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구어체 담화문으로는 소개, 안내방송, 인터뷰, 뉴스, 광고, 강의, 강연 등이 있으며 문어체 담화문으로는 편지, 메일, 일기, 신문/잡지 기사, 논평 등이 제시되고 있어 다양한 주제와 장르를 포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문의 길이는 각 문제 유형별로 주어진 글자수 범위 내에서 제시된다. 시험시간 내에 수험자들의 외국어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지문 길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항의 배치 순서와 난이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길어지도록 하고 있다.

4.5 다양한 시험방식

SNULT의 시험방식의 유형과 세부적인 설명은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어능력을 측정한다. 청해시험은 대화문과 담화문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화문 듣기는 1교환에서 2교환, 3교환 대화문으로 점진적으로 발화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3교환 대화문과 담화문을 듣고 질문에 답하기 유형에서는 세부 내용 파악, 주제·대의(大意) 파악, 논리적 추론 등으로 질문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독해시험은 크게 문법과 어휘, 독해 문제로 구성되어 문법과 어휘에서는 주로 구문능력을 파악하고 독해에서 문맥구성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짜여 있다. 문법과 어휘 문제라 하더라도 문맥을 통한 의사소통능력의 측정을 최대한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문어체 문장뿐만 아니라 구어체 대화문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독해는 빈칸 채우기와 질문에 답하기로 나뉜다. 질문 유형으로는 세부 내용 파악, 주제·대의(大意) 파악, 논리적 추론 등으로 다양하게 출제된다.

이상 5가지 분석항목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SNULT 청해시험과 독해시험은 언어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측정에 적합한 시험이며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되는 시험방식의 여러 요건들을 구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청해시험과 독해시험의 구체적인 문제 유형을 예시하고 타당성 있는 시험방식이 각 문항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겠다.

5. 문제 유형 분석

5.1. 청해

일상의 의사소통 중 45%가 듣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청해는 가장 중요한 언어능력에 속한다. 청해는 다른 언어능력의 발전, 특히 말하기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모국어로서의 청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외국어를 배우는 화자는 드물지 않게 청해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청자가 실제로 진행되는 시간 속에서 연속적인 청각의 신호를 이해해야 하고, 텍스트나 대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수동적인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Kranert, 2013). 게다가 외국어로서 언어를 듣는 청자가 모국어로 언어를 듣는 청자와 동일한 언어적, 내용적,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청해 텍스트와 청해 질문방식이 청해 난이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텍스트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틴펠트는 특히 (1) 텍스트의 길이와 구조, (2) 말하는 속도, (3) 배경소음의 크기정도 (기술적인 조건), (4) 사용된 언어 종류(표준어, 지역방언, 구어체 언어 등), (5) 주제나 청취상황에 대한 익숙함의 정도, (6) 발음 등을 들고 있다(Tinnefeld, 2013). 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이 ‘난이도가 있는’ 지문도 ‘쉬운’ 질문, 예를 들어 듣기 상황 이해하기, 화자의 수 알기와 같은 질문을 통해 초보자가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쉬운’ 지문도 복합적이거나 수준이 높은 청해 질문을 통해 충분히 어려운 문제로 만들 수 있다.

청해는 목표를 확실하게 겨냥하는 정신활동이다. 실제 생활에서는 상황에 따라 대화/담화의 대의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대화/담화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정보를 이해해야 할 때가 있고, 대화/담화를 듣고 결론이나, 의도나 분위기 등을 추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대화/담화의 대의를 파악한다는 것은 주로 이 대화/담화의 핵심 내지는 주된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상황 (누가? 어디서? 왜?)과 주제 (무엇에 대하여?)나 중심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대화/담화의 세부 이해는 대화/담화의 필요한 정보만 알아들으면 되는 경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역 안내 방송에서 승강장 번호라든지 연착 기차 시간, 해당 기차의 행선지 등이다.

이것을 속성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의적 이해 문항>

-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파악하기
- 전화를 건 목적 파악하기
- 말의 의도나 목적, 진정한 의미 파악하기
- 들은 내용의 핵심 주제나 내용 파악하기

<세부적 이해 문항>

- 대화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 파악하기
-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선택지 찾기
- 대화 내용과 다른 선택지 찾기
- 대화 내용에서 언급한 시간 파악하기
- 대화 내용에서 언급한 장소 파악하기
- 대화 내용에서 언급한 인물 파악하기

<추론적 이해 문항>

- 상대방 말에 대한 적절한 응답 찾기
- 화자의 기분 파악하기
- 말하는 상황의 분위기 파악하기
-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 들은 내용을 추론하여 적절한 결론 제시하기

Rost(1990)는 청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요소로서 (1) 발음 식별력 (2) 억양, 휴지 및 강세 이해 (3) 구어의 특징 이해 (4) 어휘/숙어 (5) 문법 실력 (구문력) (6) 세부내용 파악 능력 (7) 중심사상 파악능력 (8) 화자의 태도 (얼굴 표정 및 몸동작) 및 어조의 이해 및 추론 (9) 세상 지식 등이 있다고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1)~(5)와 (9) 에 해당하는 기본 요소는 결

국 (6), (7), (8)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라고 보고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SNULT 청해 시험은 바로 이러한 듣기 능력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만든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SNULT 청해 시험의 성격을 알 수 있다(<표 2>참조).

표 2. SNULT 청해문항 개괄

문항번호	지문	세부 지문	문제형식	속성	난이도			중간문항수	총문항수
					하	중	상		
1~15	대 화 문	1 교환 대화문	빈칸 넣기	추론	6	6	3	15	15
16~30		2 교환 대화문	빈칸 넣기	추론	6	5	4	15	15
31~40		3 교환 대화문	질문에 답하기	대의	3	1		4	10
				세부	2	1	1	4	
				추론		1	1	2	
41~50	답 화 문	답화문	질문에 답하기	대의	2	2		4	10
				세부		2	2	4	
				추론			2	2	

SNULT 청해 시험의 지문은 4가지 유형, 즉 1교환 대화문, 2교환 대화문, 3교환 대화문과 답화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교환 대화문과 2교환 대화문은 추론을 유도하는 빈칸문제 형식으로 되어있고, 3교환 대화문과 답화문은 질의 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 추론이나 대의파악 뿐만 아니라 세부내용까지 묻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각의 문항은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으로 고루 분배되어²⁾ 시험의 일관적인 난이도 유지와 응시생들의 객관적인 외국어 능력 측정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대의 파악 문항은 3교환 대화에서 난이도 <하> 문제가 3문항, 난이도 <중> 문제가 1문항인 반면 답화문에서의 대의 파악 문항은 난이도 <하> 문제가 2문항, 난이도 <중> 문제가 2문항이다. 세부내용 문제에 있어서도 3교환 대화에서는 난이도 <하> 문제가 2문항, 난이도 <중>과 난이도 <상> 문제가 각각 1문항인 반면, 답화문에서는 난이도 <중> 문제가 2문항, 난이도 <상> 문제가 2문항이다. 추론 문제도 난이도 배분이 3교환 대화와 답화문이 약간 다른데, 3교환 대화 문항에서는 난이도 <중>과 난이도 <상> 문제가 각각 1문항인 반면, 답화문에서는 난이도 <상> 문제가 2문항이다. 이는 아무래도 대화문보다 답화문에서 조금 복잡적이고 이론적인 텍스트를 다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대의 파악뿐만 아니라 세부내용, 추론까지 난이도가 한 단계 높게 출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2) 각 문항은 정답률이 66~100%가 되면 난이도<하>, 34~65%면 난이도<중>, 0~33%이면 난이도<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밖에도 어휘나 표현과 문장의 길이 선택에도 난이도 별 차등을 두고 있다.

5.1.1. 1교환 대화문: 한 문장을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예1>

F: Wo machst du im Sommer Urlaub? M: _____	여: 여름 휴가를 어디서 보낼 거니? 남: _____
(a) Ich bin Lehrerin. (b) Ich fahre ans Meer. (c) Ich komme aus Korea. (d) Ich kaufe einen Schrank.	(a) 나는 선생이야. (b) 나는 바닷가로 가려고. (c) 나는 서울 출신이야. (d) 나는 옷장을 살 거야.

<예1> 유형의 장점은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짧은 질문에 대한 유추 작업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응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깊은 내용을 담기는 힘들고 주로 일상에서 자주 쓰는 질문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운 답변을 요구한다.

5.1.2. 2교환 대화문: 짧은 대화를 듣고 이어질 대화로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예2>

M: Schönes Wetter heute, nicht wahr? F: Ja, du hast recht. Es ist so klar. M: Dabei sah es gestern ganz anders aus. F: _____	남: 오늘 날씨 좋지, 그렇지 않아? 여: 맞아, 네가 옳아. 청명하네. 남: 그런데 어제는 완전히 달랐잖아. 여: _____
(a) Ja, es regnete stark. (b) Ja, es war noch schöner. (c) Ja, so waren wir im Park. (d) Ja, es konnte nicht besser sein.	(a) 맞아, 비가 많이 왔지. (b) 맞아, 날씨가 더 좋았지. (c) 맞아, 그래서 우리는 공원에 갔었지. (d) 맞아, 더 좋을 수는 없었지.

<예2> 유형은 앞의 세 문장을 듣고, 답을 유추해내는 문제이다. 전체 대화가 2교환이라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거나, 문맥의 흐름을 만들어 보다 더 섬세한 답을 유도해낼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 대화가 마지막 화자의 답을 유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의 예문은 날씨와 관련된 전형적인 대화이다. 여기서 좋은 날씨를 뜻하는 ‘맑은’과 ‘어제는 완전히 달랐다’는 남자의 두 번째 문장이 결정적인 힌트를 준다.

5.1.3. 3교환 대화문: 긴 대화를 듣고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 고르기

(1) 대의 파악

대의 파악을 요구하는 문항은 3교환 대화문을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

<예3>

<p>F: Wie fandest du es?</p> <p>M: Es war ein wunderschöner Abend.</p> <p>F: Udo Bohmer hat wieder fantastisch dirigiert.</p> <p>M: Allerdings hat er den ersten Satz zu langsam interpretiert.</p> <p>F: Ich fand die Geigen sehr stimmungsvoll.</p> <p>M: Naja, das ist Geschmackssache.</p> <p>Frage: Worüber unterhalten sich die beiden?</p> <p>(a) Über ein Buch.</p> <p>(b) Über einen Film.</p> <p>(c) Über ein Konzert.</p> <p>(d) Über ein Theaterstück.</p>	<p>여: 어땠던 것 같아?</p> <p>남: 정말로 아름다운 저녁이었어.</p> <p>여: 우도 보머가 역시 훌륭하게 지휘했어.</p> <p>남: 그런데 첫 악장은 너무 천천히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했어.</p> <p>여: 나는 바이올린이 아주 정취가 있다고 생각했어.</p> <p>남: 그래, 그건 취향의 문제지.</p> <p>질문: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가?</p> <p>(a) 어떤 책에 대해서.</p> <p>(b) 어떤 영화에 대해서.</p> <p>(c) 어떤 콘서트에 대해서.</p> <p>(d) 어떤 연극작품에 대해서</p>
--	---

<예3> 유형의 장점은 대화의 분석, 종합, 평가 등 고급정신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특히 이 경우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 대상에 대한 느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대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

5.1.4. 담화문: 담화를 듣고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 고르기

세부내용을 묻는 문항과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의 예는 담화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1) 세부내용

<예4>

<p>Heutzutage ist Pilgern nicht nur unter Strenggläubigen beliebt. Streng genommen ziehen Pilger mit dem Anlass der Buße oder der Heilung von einer Krankheit in die Fremde. Als Pilgerziele locken Stätte, an denen Heilige einst gewirkt haben. Der Pilger von heute sucht außerdem ebenso Kultur, Natur und Besinnung, sowie die Gemeinschaft anderer auf dem Weg zu den bedeutenden Orten.</p> <p>Frage: Aus welchem zusätzlichen Anlass pilgern Leute heute im Vergleich zu früher?</p> <p>(a) Um zu büßen. (b) Um Kultur zu erleben. (c) Um heilige Stätten zu besuchen. (d) Um von Krankheit geheilt zu werden.</p>	<p>오늘날 순례는 신앙이 돈독한 신자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순례자들은 참회를 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타지로 나선다. 순례자들의 목적지로서 성자들이 한때 활동했던 곳이 사람들을 유인하다. 오늘날 순례자들은 그 밖에도 의미심장한 장소로 가는 도중에 문화, 자연, 숙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추구한다.</p> <p>질문: 오늘날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 어떠한 추가적인 계기로 순례하는가?</p> <p>(a) 참회하기 위하여. (b) 문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c) 성스러운 곳을 방문하기 위하여. (d) 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p>
--	---

<예4> 문항은, 이전에 신앙이 깊은 신자들이 순례의 길에 나설 때는 종교적인 이유와 병의 치유가 주목적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이 밖에도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을 즐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스스로를 돌아켜보는 것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른 것은 잘 못 알아들어도 기존의 순례 목적 외 추가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스스로를 돌아켜 보게 되었다는 부분을 알아들어야 하는 세부 이해 문항이다.

(2) 추론

<예5>

<p>Liebe Kollegen, zu den Reformen der Universität gehört auch die Mitbestimmung aller Hochschulangehörigen. Und die ist nicht gegeben, wenn in entscheidenden Gremien fünf Dozenten sitzen, aber nur zwei</p>	<p>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대학의 개혁사안 중에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공동 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중요한 협의회에서 강사 다섯 명이 앉아 있고 학생 두 명만 있다면 공</p>
--	--

Studenten. Und kommen Sie mir nicht mit dem Vorschlag die Zuständigkeit der Gremien zu verändern, oder die Anzahl der Dozenten zu reduzieren. Wir brauchen die Gleichstellung von Lehrenden und Lernenden.	동 결정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의회의 권한을 바꾸거나 강사 수를 축소한다는 제안을 하지는 마십시오. 저희는 강사와 학생 사이에 동등한 권리를 필요로 합니다.
Frage: Was wird der Redner vorschlagen?	질문: 연설자는 무엇을 제안할 것인가?
(a) Die Gremien abzuschaffen.	(a) 협의회를 아예 없애려고 한다.
(b) Mehr Dozenten in die Gremien aufzunehmen.	(b) 더 많은 대학 강사들을 협의회에 수용하려고 한다.
(c) Die Zahl der Studenten in den Gremien zu erhöhen.	(c) 협의회에 소속된 학생의 수를 증가시키려고 한다.
(d) Die Zahl der Dozenten in den Gremien zu reduzieren	(d) 협의회에 소속된 대학 강사들의 수를 축소시키려고 한다.

<예5>에서는 담화문을 듣고 수험자는 연설자가 의도하는 바를 추론해서 선택지의 답을 골라야 한다. 연설자는 협의회에서 강사와 학생들의 동등한 결정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강사 다섯 명, 학생 두 명이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니, 학생을 세 명 늘리거나 강사를 세 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연설자는 강사의 수를 축소하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연설자가 원하는 것은 학생 수를 더 늘려 동등한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다.

5.1.5 청해시험 소결론

SNULT 청해시험에서는 모든 문항을 난이도 <상>, <중>, <하> (각각 13문항, 18문항, 19문항)으로 조절하고, 이 토대 위에 외국어능력 측정에서 본질적인 부분, 즉 대의 파악, 세부 이해, 추론 문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험자의 청해 실력을 최대한 입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SNULT 청해시험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비중을 두어 다양한 길이와 내용, 속성 및 난이도를 가진 대화문의 비중을 전체 문항수의 4/5로 조정하였다. 담화문은 한 명의 화자가 말하거나 설명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특히 청해에서는 수험자에게 훨씬 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항 수 비중을 1/5로 하였다. 그러나 지문 길이의 면에서 보면 1교환 대화문이나 2교환 대화문보다 더 길므로, 이렇게 양적인 면에서 보나, 질적인 면에서 봐도 담화문이 갖는 중요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모든 청해 영역에 걸쳐 SNULT는 일상 언어에만 머물지 않고 실용 외국어를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실용언어란 일상언어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평균적인 교양을 갖춘 일반인이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일상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뜻한

다. 여기에는 일상언어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 외에도 신문, 잡지, 방송, 예약, 구매, 상담, 강연(강의), 회의 등의 내용까지도 포함된다(<예8> 참조).

5.2 독해

SNULT 독해시험은 내용의 난이도와 지문의 길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이는 수험자가 언어능력 이외의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정답 유추 확률을 낮추고, 고득점자가 실전에서는 제대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존 시험들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독해시험 문제는 아래 <표 3>과 같이 (1)문법, (2)어휘, (3)독해의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SNULT 독해 문항 개괄

문제영역	문항번호	문제유형	속성	난이도		
				하	중	상
문법 (10)	1~8	빈칸 채우기(8)	구어체 어법사용 능력(4) 문어체 어법사용 능력(4)	4	3	1
	9~10	오류 찾아내기(2)	구어체 어법 정오 판단 능력(1) 문어체 어법 정오 판단 능력(1)		1	1
어휘 (10)	11~20	빈칸 채우기(10)	구어체 어휘 사용 능력(5) 문어체 어휘 사용 능력(5)	4	4	2
독해 (30)	21~35	빈칸 채우기(15)	세부내용파악능력(13) 응집력파악능력(2)	5	7	3
	36~50	질문에 답하기(15)	대의파악능력(5) 세부내용파악능력(7) 추론(3)	5	6	4

문법과 어휘 문제에서는 구어체와 문어체로 된 문제를 모두 제시하도록 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요한 문법능력과 어휘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해 문제는 빈칸 채우기와 질문에 답하기 두 유형으로 제시되며 문법, 어휘 문제에 비해 난이도 상 문제의 비중을 높여 고도의 문맥파악능력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2.1 문법

단순한 암기 혹은 문법적 지식을 통해 정답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이고 기계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 대화상황 혹은 문어체 텍스트 맥락과 관련된 문법적 지식을 측정하고 있다.

(1) 빈칸 채우기

문법 문제의 빈칸 채우기는 구어체와 문어체 2종류로 구성된다. 다음의 <예6>은 구어체인 대화문의 빈칸 채우기 유형이다.

<예6>

<p>A : 休みはいつですか。 B : 仕事か忙しくて、_____休めません。</p>	<p>A: 휴일은 언제예요? B: 일이 바빠서 _____ 쉴 수 없어요.</p>
<p>(a) 全然 (b) 少し (c) もっと (d) たまに</p>	<p>(a) 전혀 (b) 조금 (c) 더 (d) 가끔</p>

<예6>은 동사의 부정형에 호응하는 부사를 고르는 문제이다. 부사를 단독으로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닌 동사와의 호응관계로 판단하는 능력을 묻고 있다. 구어체 문제는 대화문으로 제시하여 실제 의사소통에서처럼 맥락을 파악한 다음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적절히 구문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오류 찾아내기

오류 찾아내기는 구어체와 문어체 2종류로 제시된다. 특히 한 단락 정도 분량의 구어체 대화문과 문어체 담화문으로 제시되어 문맥과 함께 사용되는 거시적인 문법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7>은 문어체 형식의 오류 찾아내기 유형이다. 독해력 문제가 아니므로 지문이 너무 길지 않도록 4~5줄 정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지문을 제시하고 있다.

<예7>

<p>(a) 近年、国の右肩上がりの経済成長は見込めず、国の財政も厳しい状況が続いている。(b) そんな中、財政を改善しようと、公務員の定数を削減し人件費を抑える試みが実施され始めた。(c) しかし、定数削減により一人一人の負担は増え、超過勤務が慢性化している。(d) このように職場環境が厳しくなる中で、過労による休職者が急増される。</p>	<p>(a) 최근 수년, 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예상할 수 없고 나라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b) 그런 가운데 재정을 개선하려고 공무원 정원을 삭감해서 인건비를 억제하려는 시도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c) 그러나 정원 삭감에 의해 개개인의 부담은 늘어 초과 근무가 만성화되고 있다. (d) 이처럼 직장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로에 의한 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p>
--	---

<예7>은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의 지문으로 (d)는 ‘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에 해당하는 「休職者が急増する」가 맞는 표현이다. 일본어 문장에 자주 사용되는 수동형을 문맥 속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5.2.2 어휘: 빈칸 채우기

어휘 문제는 빈칸 채우기 유형으로 제시되며 문맥에 가장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어휘 문제의 빈칸 채우기 유형도 구어체와 문어체 2종류로 구성된다. <예8>은 구어체 대화문의 빈칸 채우기 유형이다.

<예8>

<p>A : 高橋さんは、妹さんと似ていますか。</p> <p>B : いいえ。妹は、私と違って _____がまるいんです。</p> <p>(a) 背</p> <p>(b) 足</p> <p>(c) 顔</p> <p>(d) 髪</p>	<p>A: 다카하시 씨는 여동생하고 닮았어요?</p> <p>B: 아니요. 여동생은 저랑 달라서 _____이 동그래요.</p> <p>(a) 키</p> <p>(b) 다리</p> <p>(c) 얼굴</p> <p>(d) 머리카락</p>
--	--

<예8>은 대화문에 맞는 명사를 고르는 문제이다. 신체 부위 중에서 「まるい」에 맞는 것은 (c)의 얼굴이다. 해당 단어가 사용되는 전후의 어휘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5.2.3 독해: 빈칸 채우기

독해 문제에서는 실용문과 비실용문, 즉 학술문과 같은 독해 지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며 목적에 맞는 정보를 얻는 능력을 평가한다.

빈칸 채우기 유형에서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어휘구를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지문을 충분히 읽고 대답할 수 있도록 난이도에 따라 지문의 길이를 2~4줄 정도로 작성한다. 이러한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글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는 것이다. 맨 마지막 한 두 문장만 읽고도 답을 맞출 수 있다면 문제의 취지에 어긋난 문제이다. 이를 위해 빈칸은 가능하면 문단 끝에 오도록 하고 있다.

수험자의 배경지식이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도록 다양한 내용의 지문을 출제하도록 한다. <예9>는 실용문의 빈칸 채우기 유형이다.

<예9>

<p>これは、今日作ったカレーライスの写真です。でも、写真があまりきれいに写っていませんよね？ 実は、とてもおいしそうだったので、_____少し食べてしまったんです。</p>	<p>이것은 오늘 만든 카레라이스의 사진이에요. 하지만 사진이 별로 예쁘게 찍히지 않았지요? 실은 너무 맛있어 보여서 _____ 조금 먹어 버렸거든요.</p>
<p>(a) 写真を撮る前に (b) 写真を撮った後で (c) カレーを食べる前に (d) カレーを食べた後で</p>	<p>(a) 사진을 찍기 전에 (b) 사진을 찍은 후에 (c) 카레를 먹기 전에 (d) 카레를 먹은 후에</p>

<예9>는 앞뒤 문맥을 파악하여 빈칸에 들어갈 표현을 고르는 문제이다. 카레라이스의 사진이 예쁘지 않은 것은 먹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으므로 (a)가 정답이다. (b)는 시간 순서가 맞지 않고 (c), (d)는 밑줄 다음의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5.2.4 독해: 질문에 답하기

글의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로 대의파악, 세부내용, 추론의 세 가지 유형을 묻는 문제로 구성된다. 각 유형에 맞는 적합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문과 선택지의 난이도가 비슷한지 등의 항목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세부내용을 묻는 문제의 보기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해야 하며, 세부내용의 선택지는 세부로만, 추론문제의 선택지는 추론으로만 구성되어야 평가항목을 측정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독해력 문제인 만큼 정답은 일반상식이나 배경지식과 무관하게 오로지 제시된 지문만을 바탕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1) 대의파악

글의 주제를 적절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유형이다. 질문에 답하기 유형에서는 적합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대의파악의 대표적인 발문 예는 다음과 같다.

-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 이 글에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이 문장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10>

<p>朝から雨でした。私は急いでデパートへ出かけました。今日からセールが始まります。前から欲しかったコートがあるのです。しかし途中で転んでしまって、服はすっかりぬれてしまいました。家に戻って、服を着替えて、もう一度出かけました。デパートに着くと、コートは売り切れていました。</p>	<p>아침부터 비가 왔습니다. 나는 서둘러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오늘부터 세일이 시작됩니다. 전부터 갖고 싶었던 코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넘어져 버려서 옷이 몽땅 젖어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외출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니 코트는 다 팔려 있었습니다.</p>
<p>[質問] この人の状況は、次のうちどれですか。</p>	<p>[질문] 이 사람의 상황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p>
<p>(a) かしい (b) まずい (c) 不運だ (d) 不便だ</p>	<p>(a) 맵다 (b) 맛없다 (c) 불운하다 (d) 불편하다</p>

<예10>은 글의 대의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비가 오는 날 필자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시간 순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일들의 성격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c)가 가장 적절히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정답이다.

(2) 세부내용

글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발문 예는 다음과 같다.

- ~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내용과 일치하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어느 것입니까?
- 필자가 ~한 이유/계기는 무엇입니까?

<예11>

<p>このカフェには、店の外に海が見える席があります。でも、店の中も風がよく通って暑くありません。メニューは、フルーツがいっぱいのパフェや、ピザなどがあります。店のオーナーが絵本作家なので、店にはオーナーの作品が置いてあります。作品は、買って帰ることもできます。</p>	<p>여기 카페에는 가게 밖에 바다가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도 바람이 잘 통해서 덥지 않습니다. 메뉴는 과일이 가득한 파르페나 피자 등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림책 작가여서 가게에는 주인의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작품은 사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합니다.</p>
---	--

<p>[質問] 店の説明として正しいものはどれですか。</p> <p>(a) 食べ物を買って帰ることができます。</p> <p>(b) いろいろな人の絵本を読むことができます。</p> <p>(c) デザートや洋食を食べることができます。</p> <p>(d) 店の外は涼しいですが、店の中は暑いです。</p>	<p>[질문] 가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p> <p>(a) 음식을 사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p> <p>(b) 여러 사람의 그림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p> <p>(c) 디저트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p> <p>(d) 가게 밖은 시원하지만 가게 안은 덥습니다.</p>
---	---

<예11>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를 소개하는 내용의 글이다. 가게에 대한 맞는 설명은 「メニューは、フルーツがいろいろのパフェやピザなどがあります」라는 본문 내용을 말을 바꾸어 표현한 (c)가 정답이다. (a)는 본문에서는 「作品を買って帰れる」라고 했으므로 오답이다. (b)는 본문에서 「オーナーの作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오답이고, (d)는 가게 안도 시원하다고 했으므로 오답이다. 이처럼 지문에 나온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는 내용으로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어 정답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 추론

글의 내용에 근거해 추측해서 대답하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발문 예는 다음과 같다.

- 이 글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이 글에 의하면 「~」에 해당하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이 글에 의하면 「~」으로 적합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12>

<p>昨年夏の大洪水では、周りの住宅が流される中、白い住宅が1軒だけボツンと残ったことが話題になった。洪水で流されてきた付近の住宅や倒木がぶつかっても、傾いたり、倒壊したりすることはなく、この家の中に取り残された住民は自衛隊によって無事救助された。流された住宅がこの家につかったことで止まり、そのおかげで救助された人もいたため、この家をたたえる声がネット上には相次いだ。</p> <p>[質問] ネット上の反応として正しくない</p>	<p>작년 여름 대홍수에서는 주위의 주택이 떠 내려가는 와중에 흰 주택이 한 채만 덩그러니 남은 일이 화제가 되었다. 홍수로 떠내려온 부근의 주택이나 쓰러진 나무가 부딪쳐도 기울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일 없이 이 집 안에 남겨진 주민은 자위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다. 떠내려온 주택이 이 집에 부딪혀 멈추고 그 덕택에 구조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칭송하는 소리가 인터넷 상에는 이어졌다.</p> <p>[질문] 인터넷상의 반응으로서 옳지 않은 것</p>
---	--

ものはどれですか。	은 어느 것입니까?
(a) 「これで何人もの命が救われた！」	(a) 「이걸로 여러 명의 생명이 구해졌다!」
(b) 「おかげで他の家の破壊が防げた！」	(b) 「덕분에 다른 집의 파괴를 막을 수 있었다!」
(c) 「私もいつかそんな家を建てたい！」	(c) 「나도 언젠가 그런 집을 짓고 싶다!」
(d) 「建築メーカーの技術が素晴らしい！」	(d) 「건축 메이커의 기술이 훌륭하다!」

<예12>는 대홍수에서 일어난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추론하도록 하고 있다. (b)가 사실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a)는 사실에 근거한 칭찬, (c), (d)는 집의 튼튼함에 관한 칭찬이다.

5.2.5 독해시험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SNULT 독해시험은 지필고사라는 제약 속에서도 최대한 의사소통 능력이 반영된 문법, 어휘, 독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타당도가 검증된 빈칸 채우기와 질문에 답하기와 같은 문제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구어체와 문어체를 모두 채용하고 있는 점, 의사소통의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문맥파악능력과 문장구성능력을 측정하는 독해 문제가 문법과 어휘 문제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자 언어평가 도구로서 타당성 있는 시험체제를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독해 질문에 답하기 문제는 대의파악, 세부내용, 추론의 3유형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독해력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지문 일문항 원칙을 고수하면서 어휘와 지문의 길이 등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다양한 소재의 지문을 제시하고 있어 수험자의 개별적인 수험전략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타당한 시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결론

본고는 SNULT 시험체제가 언어평가 도구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문제 구성과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검토하였다. 시험방식 양상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1) 문항 수 및 수험시간, (2) 음성언어 대 문자언어, (3) 일지문 일문항 원칙, (4) 지문 내용 및 길이, (5) 다양한 시험방식의 5가지 항목을 들어 SNULT 시험체제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SNULT는 언어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선행연구에서 타당한 방식으로 제시된 여러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해시험 문제 유형 분석에서는 1교한 대화문, 2교한 대화문, 3교한 대화문과 담화문으로 구성된 50개의 문항이 각각 균형 잡힌 난이도 분포 토대 위에 대의 파악, 세부사항 이해, 추론의 속성을 갖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청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독해시험 문제 유형 분석에서는 문법, 어휘, 독해 영역별로 각각 타당도가 검증된 빈칸 채우기와 질문에 답하기와 같은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문항분석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문제 형식과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평가 의도를 가지고 출제된 문제들이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는 본고가 SNULT 시험체제 전반에 대한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는 하나 추후 신뢰도 분석 결과 등을 보완하여 더욱 정밀한 타당도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타당도 높은 시험을 위해 속도 시험의 양상이 기본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나 기존 문항 수와 시험시간, 일지문 일문항 원칙이 수험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험자 부담 경감의 문제는 지문의 길이 조절과 다양한 시험 유형의 개발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문의 길이와 성적과의 관계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고 검증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인철(Choi, 2003)에서도 ‘변별도 및 신뢰도를 극대화하는 담화나 대화의 길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타당도 검증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2외국어 능력평가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규모와 신뢰성을 갖춘 연구가 더 많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각 외국어 별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특히 SNULT처럼 6개 외국어능력을 동일한 시험방식으로 평가하는 사례에 대한 연구성과는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본 특별호의 Sohn & Ko, 2019 참조). 최근 널리 통용되고 있는 유럽언어공통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인 수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의 이론적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한국 학습자를 위한 제2외국어의 언어평가시험의 타당도 제고를 위해서 SNULT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시험의 개발과 작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i, I.-C. (1993). A model of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test development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9(3), 383~425.
- Choi, I.-C. (2003). A model of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test development. In Y. S. Lee, W. Lee, D. Shin, & I.-C. Choi (Eds.), *Understanding of language testing* (pp. 81~128). Seoul: SNU Press.
- Ishida, T. (1992). *Introduction to Japanese testing method* (in Japanese). Tokyo: Taisyukan Press.
- Kranert, M. (2013). *Korrigieren, Prüfen und Testen im Fach Deutsch als Fremdsprache Ein kurzer Leitfaden* (in German), ResearchGate.
- Lee, G.-J. (2016). *Research of Chinese testing item types as basic studies – the limit and capacity of improvement of current chinese testing item types* (in Korean). Seoul: SNU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 Lee, Y.-S. (2003). *Understanding of language testing* (in Korean). Seoul: SNU Press.
- Ozaki, S. (2008). *Introduction to language testing: The basic principle and research methods of setting a test* (in Japanese). Okayama: Daigakukyoiku Press.
- Rost, M. (1990). *Listening in language*. New York: Longman Press.
- Shim, B.-S. (2010). *Basic research for introduction plan about second foreign language evaluation test* (in Korean). (Research Subject of Educational Policy)
- SNU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in press). *SNULT German vol. 2* (in Korean). Seoul: SNU Press
- SNU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2019). *SNULT Japanese vol. 2* (in Korean). Seoul: SNU Press
- Sohn, N.-H. & Ko, G. (2019) Linguistic cultures in SNULT for second foreign languages: The case of SNULT chinese and SNULT french listening comprehension sections. *Language Research* 55(S), 75~92.
- Tinnefeld, T. (2013). Dimensionen der Prüfungsdidaktik. Analysen und Reflexionen zur Leistungsbewertung in den modernen Fremdsprachen (in German). *Saarbrücker Schriften zur Linguistik und Fremdsprachendidaktik*.